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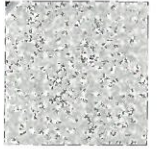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12호 2022년 9월 11일(다해)

연중 제24주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을 바코드로



입당송 | 집회 36,21-22 참조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
어 주소서.

제1독서 | 탈출 32,7-11,13-14

화답송 | 시편 51(50),3-4,12-13,17과 19(루카 15,18 참조)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
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
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
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
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제2독서 | 1티모 1,12-17

복음환호송 |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
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 루카 15,1-32<또는 15,1-10>

영성체송 | 시편 36(35),8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
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중요한 물건이 보이지 않아 간절히 찾았던 경험, 만나야 할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아 애타게 기다렸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마침내 발견하게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감정에 빠지기도 했을 테지요. 이를 떠올리다 보면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중간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간절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양을 고생하며 찾고 기뻐할 리 없습니다. 긴 복음의 돌아온 탕자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었겠지요.

당시 유다 민족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땅은 목초지가 별로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지가 아닌 가파른 벼랑과 사막으로 둘러싸인 고원 지대였지요. 한편, 양은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물건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이며, 그

래서 그런지 겁이 많고 우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이 목자를 잃고 헤매다 보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밖에요. 그러므로 가파른 벼랑을 살피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은 불안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양이 발을 헛디디지는 않았을지, 어디서 추위에 떨며 어둠을 헤매고 있을지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양을 찾게 된 순간의 환희와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양들이 덜 소중한해서가 아니라, 되찾은 한 마리의 무사함이 목자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린 어린양처럼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곤 하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 미련과 불신으로, 당장의 즐거움에 대한 욕망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헤매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간절히 찾으며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마주할 때마다 길 잃은 우리를 찾아 헤매는 하느님의 마음을 떠올려보면 어떨지요.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으며 속삭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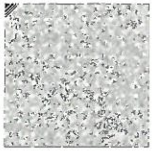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루카 15, 20)

그곳에서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맑은 날, 낯은 날 가리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짓무른 눈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가산을 탕진한 아들이 기진하여 돌아오자 아버지는 얼싸안고 입 맞추며 기쁨의 잔치를 베풁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죄로 힘들어하는 나를 가없이 여기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대자대비하신 분이십니다.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가회



허승연 클라라 | 아나운서

안 슬기로운 교사 생활

제 신앙생활에서 터닝포인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일학교 교사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주일학교에 가지 않았고 제가 힘들고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아 미사를 드리고 묵주기도를 하는 일명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주일미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이모의 계획으로 무작정 이끌려 간 곳이 주일학교 교사실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나간 주일학교였는데 당시 보좌신부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교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고도 긴(?) 중고등부 교사 생활을 통해서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교사였는지 지금도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학생들 앞에서 '식사 후 기도'를 하는 순간이 너무 떨린 나머지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를 "평화를 얻게 하소서."로 틀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사순 시기 동안 새벽 미사에 교사인 제가 먼저 나가서 학생들 인솔을 하고 출석 체크도 해야 하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생들끼리 출석 체크를 하고 저에게 인증 사진을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꺼낼 수 있는 기억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런 저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참 잘했다 싶은 일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동료 교사들과 미사 준비를 끝내고 나면 제 담당이 아닌 학생들도 포함해서 휴대폰에 저장된 주일학교 모든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을 성당에 나오게만 하면 그 뒤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담백한(?)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던 학생들이 전화 없이도 스스로 당연하게 미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담당하던 성가대는 주일학교 학생 절반이 성가대라고 할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성당에서 마주친 학부모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이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하시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였지만 번호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현재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성당에서 그 친구를 마주치게 되면 참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학생들이 제가 쏟은 관심과 사랑을 느끼고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결국 아이들이 저에게 훨씬 큰 관심과 사랑, 또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 신앙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었고 쉽지만은 않았던 교사 생활을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를 배우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어 주는 원천은 모두 지난날 주일학교 교사 생활의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교사 생활을 떠올릴 때마다 따뜻한 감동을 안겨주는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컷 묵상



류상애 아베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29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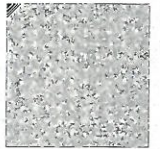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개신교는 말씀 중심, 가톨릭은 성사 중심’, 맞는 말인가요?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톨릭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느님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천 년 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요한 1,14 참조)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하느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하느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하느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은 일부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 제6조는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입니다. 이 문헌은 계시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 다루는데, 계시의 본질과 내용을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킵니다. 계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하느님 신비이고, 이 신비는 성경과 성전(聖傳, 성스러운 전통, 전승)에 제시됩니다. 기록으로 전달된 계시인 성경과 기록되지 않고 전달된 계시인 성전의 주체이자 결론은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은 지속되기에,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계시헌장」 4항)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이것을 두 글자로 ‘복음’(福音)이라 하고, 복음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 합니다. 초기 교회는 당시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던 수많은 책

중 오직 네 권만을 ‘4복음서’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와 신약의 여러 책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의 실제 목격 증언을 통해, 교회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계시인 성전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느님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의 현존은 성경과 성전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개신교적 주장인데, 이런 주장이 가톨릭교회 내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고, 하느님 계시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지만, 글자로 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교회의 신앙인 성전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아무나 해석하고, 뜻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되었기에, 그 후계자들, 즉 교회 교도권이 성령의 빛을 받아 그 말씀을 충실하게 보존하고 올바르게 해설하며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교의 중심=하느님 말씀=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성경과 성전을 통해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동생과 갈등하고 경쟁했던 모세의 형, 아론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카인 콤플렉스(Cain Complex)’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경쟁과 질투를 느끼는 대상이 바로 형제나 자매인데, 그것이 지나치게 돼 생긴 형제자매 간의 적의를 카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같은 형제, 자매, 남매 간의 질투와 경쟁은 가족 내 역동과 분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인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형은 동생을 미워하거나 괴롭힐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모세의 위로는 누나 미리암이 있고, 3년 위의 형인 아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입이 무뎌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데 반해, 아론은 말을 잘하는 웅변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고, 하느님은 모세만을 시나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일간 머물며 이스라엘을 대표해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랜 시간 모세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광야에 남겨진 백성들은 그 틈을 못 참고 불평을 터뜨렸고, 모세의 형 아론은 백성의 요구에 응답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협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탈출기 사건 이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습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의 갈등은 정치의 속성상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전면에 나설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순종적이고 온유한 성격을 지녔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면으로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

는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그의 일면이 잘 드러납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권력이나 정치의 속성과 생리를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론은 내심 모세와 비교해서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민족의 고통 현장에서 동고동락한 사람이지만 동생 모세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했던 인물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부재를 틈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그릇된 요구를 받아들인 아론의 마음은 권력에 대한 욕구로 차 있었다고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욕구에 빠지면 부모, 자식도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론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인기와 신임을 얻어 정치가로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책임감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이면서도 차이점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상당 기간 두 사람은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기면서 두 사람은 절묘하게 연합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조화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치에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존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점입니다. 양보와 타협,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버(1786-1826) | 사진출처: wikipedia



인간은 늘 흔들리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베버 <마탄의 사수> 중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 경쟁을 앞두고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갑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되거나 자신의 실력이 조금 미흡하다고 느낄 때면 더욱 초조해지죠. 초조함은 유혹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유혹에 빠져,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는 경우를 보면, 분노하면서도 과연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탓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인간을 순결한 영혼으로 살려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버(Karl Maria von Weber, 1786~1826, 독일)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Der Freischütz)>입니다. ‘마탄(魔彈)’은 악마의 마법에 걸린 총탄을 말합니다. 이 오페라는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효시라고 불릴 정도로 독일 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에겐 <무도예의 권유>의 작곡가로 알려진 베버는 어린 시절 병약한 몸으로 아버지의 악단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느라 어느 한 곳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악단이 연주하는 연극을 보면서 장차 오페라 작곡가로 성장하는 기분을 익힐 수 있었으니, 이런 환경이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됐죠. 그는 1817년 서른한 살에 드레스덴 궁정 극장의 지휘자가 됐는데,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베버는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 오페라에 비해 열세이던 독일 오페라를 살리고자 각고의 힘을 쏟았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작곡된 곡이 오페라 <마탄의 사수>입니다. 이 오페라를 시작으로 독일 오페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특히 독창적인 독일 악극을 만들어 낸 바그너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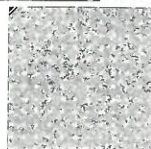
<마탄의 사수>는 독일의 전설집 <귀신 이야기책 (Das Gespensterbuch)>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헤미아의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인간의 고뇌와 절망, 사랑, 욕망, 이기심 등을 짜임새 있게 다루었죠. 영주의 숲을 관리하는 산림관의 딸 아가테와 사랑하는 사이인 사냥꾼 막스가 결혼 조건인 사격 대회 우승을 위해 악마와 거래했다가 아가테를 위험에 빠트리고 악마와 한 거레까지 들통나서 추방당할 위기에 몰리지만, 순수한 아가테의 영혼과 숲속 은자(隱者)의 도움으로 구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서곡’, ‘사냥꾼의 합창’과 더불어 이 오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은 막스의 사격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든 아가테가 부르는 믿음의 노래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태양은 언제나 하늘에 머물 것입니다. ... (중략) ... 하느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니, 나의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믿고, 비록 이것이 나의 마지막 아침일지라도 ... (중략) ... 순수하고 맑은 그분의 눈이 나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결국 아가테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고 막스를 추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존재하듯,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께선 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노래: 엘리자베트 그뤼머(소프라노)



성당의 천장은 하늘나라 중의 하늘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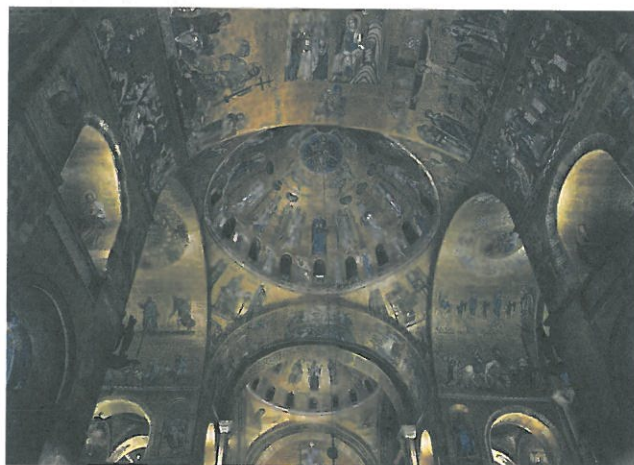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우리는 발로 바닥을 딛고 걸을 수 있으며 벽에 몸을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장은 우리 몸 저쪽 위에 떠 있습니다. 바쁠 때는 바닥을 밟으며 빨리 움직이고, 일하며 집중할 때는 벽을 마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장은 일을 멈추고 조용히 나를 성찰할 때 비로소 크게 나타납니다. 천장은 나를 넘어서 저 위에 있고 나를 내려다보며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해 줍니다.

천장을 영어로 'ceiling'이라 합니다. 덮는다, 가린다는 뜻인데 라틴어 'caelum(천국,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것은 결국 하늘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하늘(天)을 가린다(闕)고 천장을 한자로 '天障'이라고 씁니다. 천장이 하늘을 가리니 하늘을 대신한다는 뜻인데, 이는 영어나 우리말이나 똑같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사는 집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것은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집인 성당의 천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당은 오랫동안 돌로 만들어져 왔으므로 사각형의 벽으로 둘러싸인 구조 위에 둥근 돔이나 볼트가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둥근 돔과 사각형의 벽이나 기둥은 건축적으로 필요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둥근 돔은 하늘나라를, 벽으로 둘러싸인 밑부분은 땅을 나타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앙 돔이나 천장에는 만물의 주재자를 뜻하는 판토크라토르(Pantocrator)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온 누리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푸르게 칠한 천장 위에 천상의 예루살렘을 비추는 수많은 별과 천사들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천장은 빛을 받는 낮에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표상했지만, 밤에 촛불을 켜고 밝힐 때는 더 아름답고 신비롭게 성당 안을 덮어 주었습니다.



산마르코 대성당 베네치아 1063~1094년 재건축

587년에 시리아에 지어진 에데싸(Edessa) 성당을 묘사한 찬미가가 전해집니다. 아주 작은 성당이었는데도 “둥근 볼트는 하늘나라처럼 확장되고 모자이크와 함께 별들처럼 비치고 있으며, 솟아오르는 돔은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나라 중의 하늘나라이고, 돔을 받치는 네 개의 기둥은 세상의 네 방향”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과 땅, 사도들, 예언자들, 순교자들 그리고 참으로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건축의 구조가 하늘나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과 하느님까지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대성전에는 반원 제단 위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예수 승천 돔, 예언자 돔, 성령 강림 돔 등 몇 개의 돔이 상하좌우로 연속해 있습니다. 이런 천장과 벽으로 구성된 성당의 내부는 모두 금박으로 덮여 있습니다. 돔 안에도, 돔 아래와 아치 사이에도 그리고 아치의 밑면에도 모자이크로 그린 수많은 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언제나 나를 넘어 있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말해줍니다.

9월 18일(주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를 대축일' 경축 이동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9월 17일 이재현 요셉 신부(41세)
- 1950년 9월 17일 정진구 마티아 신부(30세)
- 1950년 9월 17일 백남창 아가페도 신부(30세)

- 1978년 9월 12일 조인원 빈첸시오 신부(71세)
- 1991년 9월 14일 김덕제 치릴로 신부(64세)
- 2001년 9월 18일 임충신 마티아 신부(94세)
- 2003년 9월 18일 임세빈 요셉 신부(90세)
- 2009년 9월 12일 남영희 이시도로 신부(74세)

*1950년 선종하신 신부님들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로 한국 전쟁 중 순교한 분들입니다.

교구청일람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서울주보 표지 사진전: 전관
전시일정: 9월14일(수)~19일(월)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매일 두번째 화요일에 진행되는 희망으로 가는 길은 9월과 12월 쉽니다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수업'

주제: 내일생의 치유
때: 9월20일~12월20일 매주(화)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9월 1335차 미사 9월1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본당: 덕원자치수도원구 덕원 본당, 고원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제37회 대한민국 가톨릭공직가족 피정대회

대상: 전국 가톨릭 공무원 및 공사공단 직원과 가족(퇴직자 포함) / 내용: 도보성지순례 및 영성특강, 문화공연 및 장엄미사(집전: 정순택 대주교)
때: 9월24일(토) 10시~17시, 효창운동장(도보성지순례 포함) / 문의(신청): 02)727-2078 직장사목팀, 서울시교우협의회, 기관별 교우회 총무

2022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9월16일(금) 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준비물: 피조물 보호 및 기후위기행동 개인 피켓(의무는 아님)
미사 후 피조물 보호를 위한 피켓팅 예정 / 이 미사는 '제42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이기도 합니다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8년 2월29일 이전 출생) / 문의: 02)740-9704, 9705
원서접수: 9월13일(화)~17일(토)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1월4일(금)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참조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9월 월례미사

때: 9월13일(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례: 노인사목팀 담당 사제
문의: 02)727-2385 노인사목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2022 가을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음악, 성경, 건축), 영적 독서 모임 달달책방(시간 변경됨),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심화반, 캘리그라피(심화반)-성탄 카드 만들기 · 수제 도장 새기기, 칼럼바로 연주하는 성가(기초반, 심화반)

2022 빈민사목위원회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CUM)' 입주자 모집
함께 꾸는 꿈(CUM)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셰어하우스 개념의 사회주택입니다

모집대상: 19세~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 · 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기타 형편이 어려운 청년
모집인원: 총 10명(남성전용 4명, 여성전용 6명)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 관리비(월 임대료 없음)
입주시기: 10월 입주 가능 / 문의: 02)777-7261
모집일정: 9월1일(목)~30일(금)
신청방법: 이메일(withcum@catholic.or.kr) 제출

온라인 전례학교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1) 2022년 3차 온라인 전례학교(이론)
대상: 전례봉사자, 일반신자
때: 10월1일(토)~11월30일(수) /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회비: 2만원(9월26일(월) 마감) /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확인
전례봉사자-본당 사무실 교구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일반신자-사목국 홈페이지 신청서 양식으로 접수
2) 2022년 2차 온라인 전례학교(실기)
대상: 전례봉사자 /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때: 10월1일(토)~11월30일(수) /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주제: ① 해설 · 독서, ② 제대 봉사
회비: 1만원(9월26일(월)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확인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9월17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홍보위원회 음악 피정

홍보위원회 음악 피정 '잊혀진 나'
내용: 바쁜 일상 속에 뒷전으로 미뤄졌던 '나'를 찾아봅니다. 성가,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 연주와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 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회비 없음
대상: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30명)
때: 9월25일(일)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진행: 피아니스트 에드윈 김, 허영엽 신부
신청: 네이버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 문의: 02)751-4100

가톨릭학생회(KYCS-Cell) 회원 모집

가톨릭학생회는 로마교황청 산하 국제가톨릭학생회(IYCS-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에 가입되어, 활동과 나눔을 통해 또래들과 체험을 공유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어우러지며 건강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톨릭학생회로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세~18세)
곳: 해화동 가톨릭 청소년회관
활동: 정기적인 학생모임 및 체험활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ycs.or.kr/cell/) 참조

한미음향물자살예방센터 '슬픔 속 희망찾기' 프로그램

1) 9월 유가족을 위한 월례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9월17일(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곳: 서울대교구 영성센터 경당(구 계성여고)
집전: 차바우나 신부
2) 10월 유가족을 위한 피정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대면 피정	10월8일(토)~9일(일), 예수교한교회 우이동 명상의 집
온라인 피정	10월20일(목)~21일(금)

신청: 온라인 및 대면 피정 중 택 1
신청방법: 전화 및 홈페이지(3079.or.kr) 참조
문의: 02)727-2495 유가족 담당 수녀

서울주보 표지 사진전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오이다."

(시편 118:105)

서울주보 표지 사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홍보국은 지난 3년간 주보 1면을 장식했던 사진들을 한데 모아 '서울주보 표지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한컷 사진에 담고자 애썼던 가톨릭사진가회 회원들과 함께 준비한 이번 사진전을 통해, 복음을 표현하고 전하기 위한 열정과 수고를 다시금 되새기고 나누길 희망합니다.

2022년 9월 14일(수)~19일(월), 갤러리1898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모임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9월23일·10월7일~10일·10월21일~24일·11월4일~7일·11월18일~2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용)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때, 곳: 9월23일~25일(2박3일)·10월21일~23일(2박3일), 명상의 집(우이동) / 문의: 02)990-1004
개인 피정(수시),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우리들의 행복한 축제(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대상: 길을 찾는 35세 미만 미혼 여성
때, 곳: 10월1일(토)~3일(월),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
회비: 3만원 / 홈페이지(pddm.or.kr) 참조
문의: 010-9816-0072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서울대교구 젊은이 성령세미나(청년성령쇄신봉사회)

내용: 새 생활을 위한 성령 피정
때, 곳: 9월17일~18일,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회비: 5만원 / 문의: 010-4944-5149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 인스타그램(DM): @ruah.fiat

2022년 DMZ 평화의 길 도보순례

대상: 초6학년 이상 누구나(총 80명, 선착순 접수)
때, 곳: 3차 10월1일(토)~3일(월) 2박3일·4차 10월7일(금)~10일(월) 3박4일·5차 10월28일(금)~30일(일) 2박3일, 민족화해센터 / 회비: 10만원(3차·5차)·15만원(4차)
문의(접수): 031)941-2766(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봉헌한다."
(메시지 193번) / 강의: 이병근 신부(인천교구)
미사: 손희송 주교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때: 10월3일(월) 10시~17시, 불광동성당
문의: 010-5361-2617 박성종 총무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7차	10월7일(금)~15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8차	11월11일(금)~19일(토)	010-3540-90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9월20일~22일, 10월18일~20일, 10월24일~26일, 11월18일~20일, 12월3일~5일
성지순례(추자도성지 포함)	11월5일~8일, 11월12일~15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형성)

성경원독	9월23일(금)~10월1일(토)	문의: 010-3340-0201
말씀 피정	10월21일(금)~29일(토)	
청년 종교문화여행	10월14일(금)~16일(일)	
치유순례 피정	회비: 1만원 / 선착순 30명	
(풍수원 옛공소길순례)	문의: 010-9715-1203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9월29일~10월1일, 11월11일~12일

제4성복종로지구 성령기도회

미사·강의: 염삼섭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일 셋째주(금) 9월16일 13시~16시, 길음동성당

돌아보며 깨닫기

혼인 성소 찾기 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영성 심리상담 / 문의(예약): 010-3173-2665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동반: 강우일 주교 /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누구나(구역반장 피정 환영)
때, 곳: 9월23일~25일·10월18일~20일·11월18일~20일·12월5일~7일,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9월17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9월15일~17일·9월19일~21일·9월25일~27일·10월1일~3일·10월8일~10일·10월11일~13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마리아학교 피정 및 젊은이 수강자 모집

문의(접수): 010-9620-4820 서울 마리아학교
1) 순교자와 성모신심 묵상 피정(무로 피정)
강의: 이승희 수녀(복자회) / 묵상·미사 있음
때, 곳: 9월19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2) 젊은이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때, 곳: 9월25일~2023년 5월28일 매일 넷째주(일) 9시30분~15시30분(월1회, 총10회), 가톨릭회관 311호
회비: 16만원(중식 제공) / 마리아론 공부
계좌: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교육

수제 목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7기 개강

때: 9월26일(월) 10시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미사 반주와 전례곡들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곳: 9월 첫째주부터 레슨 시작, 흑석동성당
문의: 010-8606-2168 제14동작지구오르간교육

대구가톨릭대학교 2023년 수시 모집

전국 최대 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수시 최초 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인문 100만원, 자연·예체능 150만원) / 입학문의: 053)850-2580
2,556명 수용, 지역 최고 수준 기숙사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7세~24세)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제과제빵, 미술, 사진
남자기숙사 운영 / 문의: 02)833-0930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원3동)
홈페이지: http://db-mediaschool.kr

바오로딸 '영하 속 행복찾기' 60대 시니어 모집(기초반)

주제: 자아성장과 신앙성숙 위한 힐링 무비 / 선착순 10명
때, 곳: 9월23일부터 매일 둘째·넷째주(금) 13시30분~17시30분(총8회), 혜화바오로딸 혜화나무 / 회비: 15만원
문의(접수): 010-2928-8274 이 벨라렛다수녀

불모임 聖化(성화)학교 입학생 모집(사이버교육)

대상: 신앙성숙을 갈망하는 사람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8월1일~9월16일 / 지도: 이범주 신부
개강미사: 9월20일(화) 10시, 자양2동성당
접수: https://cafe.daum.net/BulmoimSchool
문의: 010-3789-0620 자양2동성당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검정고시, 수능, 수학, 보컬, 사진, 기타, 필라테스, 영어대화, 독서토론 등
자원봉사자: 검정고시, 수능학습 지도 가능하신 분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문화공간JU역촌동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모집

게임 개발, 웹툰 작가의 꿈을 이루십시오
모집: 게임개발,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금 수여
학점은행계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위취득 가능
문의: 02)705-8678(www.soganggame.ac.kr)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이냐시오 성인 회심 500주년 기념 강좌 및 좌담회
한국CLC 유튜브 채널(유튜브에 'CLC in KOREA' 검색) 시청 / 문의: 02)333-9898 한국CLC

1회 9월29일(목)	사랑받는 죄인-목양에 서 열망으로	현재우 박사
2회 10월6일(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이 나시오-생태적 회심	하유경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문화교실

개강: 10월4일(화)~7일(금) 강좌마다 다름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들꽃 그리기와 캘리그래피는 재료비 별도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www.fec.or.kr)

광목에 들꽃 그리기	(화) 14시~15시30분(12회)	회비: 30만원
붓펜 캘리그래피(초급)	(수) 14시~15시30분(8회)	회비: 16만원
반짝이는 박스소리수예	(금) 19시~20시30분(12회)	회비: 5만원
영적돌봄가의 자기 회복	(화) 10시~11시40분(10회)	회비: 20만원
마음챙김을 위한 글쓰기	(수) 10시~11시40분(10회)	회비: 20만원

서스론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 '참 신앙인의 길'

때, 곳: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서스론성지
역사박물관 /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 사무실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7천원) / 선착순 140명

9월23일~10월14일	신앙인이 된다는 것	이영재 신부
10월21일~28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계명	최정훈 신부
11월4일~11일	아무것도 나를	조동원 신부
11월18일~12월9일	바오로 사도가 전해주는 위로와 권고	김상우 신부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과 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취업률 76.5% 중복권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
학급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원서접수: 9월13일(화)~17일(토) / 043)270-0100~0102

예수회 특별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

강의 주제: ① 죄와 구원 1·2 ② 장애와 영성 ③ MZ
세대와의 만남 ④ 영혼을 치유하는 소리 ⑤ 영적 성장
의 심리적 역동성 ⑥ 상처와 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
서학적 진실 / 강사: 주원준 박사, 박승희 교수, 홍기
령 교수, 임숙희 박사 및 예수회 사제(최시영·이훈관)
현장 강의: 9월13일 개강, 매월 둘째·넷째주(화) 오전 10시
~12시(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 동영상 강의: 링크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모집

제9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13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대~40대 후반 여성 교우(본당 제한 없음)
오디션: 9월25일(일) 13시 / 문의(문자): 010-8788-478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3년 3월 이후 출생자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한 심신이 건강한 분
모집기간: 9월23일(금)까지 / 문의(접수): 02)2258-5781, 2

미사

파티마 성모 발현 105주년 기념 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9월13일(화)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인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혜화동성당 혼배미사 / 문의: 02)764-0221

혼인미사시간 매주(토) 11시·14시 / 혼인미사를 위한
대성전, 연회장, 신부대기실, 폐백실, 주차장 완비
곳: 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도보 3분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교육 및 피정

청소년·청년·예비자·성인 위탁 및 자체 교육·
피정 / 문의(접수): 032)465-0835
참목·대월 기도 피정: 9월23일~25일·10월12일~16일

제22회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곳: 9월16일(금) 2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단장: 조승현 신부 / 지휘: 이지영
티켓: 1만원(전석 지정석) / 문의: 010-2650-8014
19시 저녁미사 후 전석 퇴장하고 입장

가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 심리상담: 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부·가족·개인)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직원 모집

업무: 후원회원 관리 및 회계(경력 무관, 관련 자
격증 소지자 우대)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
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9월23일까지 이메일(johnofgod.kr@naver.com) 접수

역삼동성당 미화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553-0801

대상: 성실하신 교우 / 업무: 성당 청소 및 기타 관련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9월15일까지 방문·우편(우 06222, 서울시 강남구 언주
로85길 23-11) 및 이메일(yscatholic@naver.com) 접수

가재울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대상: 세례받은 교우 / 문의: 02)308-8871
업무: 시설물관리, 미화, 기타 방호업무 등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개별 연락) / 방문·우편(우
03711,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25 가재울성당) 접수

서울대교구 순교자헌양위원회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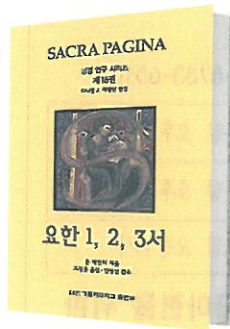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본당 활동 경험자 우대)
분야: 계약직 교구 사무원 1명(1년 근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발급) 각 1부 / 문의: 02)727-2529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9월18일(일)까지 이메일(martyrs@seoul.catholic.kr) 접수

구파발성당 사무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389-1501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회계 업무
및 PC(엑셀·한글) 가능한 분(본당 사무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9월25일(일)까지 이메일(hshs1015@nate.com) 및
사무실 방문·우편(우 03306, 서울시 은평구 진관2
로 29-16 구파발성당 사무실)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	010-2140-7414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9월18일(일) 15시	본원(사당동)	010-5920-6367 기 헬레나 수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9월18일(일)	본원(돈암동)	010-6826-6882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9월17일(토) 14시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9월17일(토) 14시~18일(일) 13시	본원	010-8353-2323(문자 문의) / osb3@hanmail.net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10-8563-6875
예수고난회	9월25일(일) 11시~16시	돈암동	010-6804-490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천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9월24일(토) 14시30분	수도원(성북동)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9월17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10월2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성경 연구 시리즈
제18권 요한 1, 2, 3서

존 페인터 지음
대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648쪽
2만5천원 | 문의: 02)762-1194

성경 연구 시리즈 요한 1, 2, 3서를 끝으로 전18권이 완간되었다. 요한 1, 2, 3서는 오늘날 요한계 의 중요한 문헌으로 읽히지만, 서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헌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저자는 사회-사학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요한계 서간의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한다.



신간

왜 겁을 내느냐?

신성근 지음
기쁜소식 | 276쪽 | 1만3천원
문의: 02)762-1194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목을 해야 하는 사목자가 신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애쓴 흔적을 모아 한 권으로 펴냈다. 이 책은 감염병 초기부터 815일 동안 본당 교우들에게 띄운 편지를 모은 것이다. 어려움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사목자의 마음과 일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성교리증

알브랑 편저
기쁜소식 | 252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1852년 중국 귀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알브랑 주교가 펴낸 책을 한양대 서신해 교수의 번역으로 원주문화영성연구소에서 펴냈다. 이 책은 19세기 중국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오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와 충돌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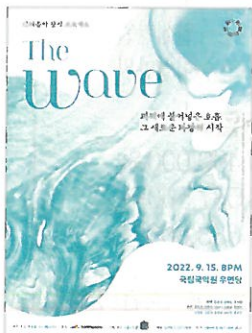


신간

자유의
의미에 대하여

에머리히 코레트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219쪽 | 1만5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문제사적-철학적 시도를 통해서 인간 자유의 의미가 본래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이해에서 인간 자유에 대한 이해는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철학의 구구한 역사 안에서 자유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그 배경과 함께 설명한다.



공연

피리창작 음악 프로젝트
The Wave

입장권: 전석 2만원
문의: 02)6415-1819
인터파크에서 서울주보 30% 할인 권증으로 예매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 8명 할인

가톨릭 음악그룹 '위로 프로젝트' 2집에 참여했던 피리 연주자 전소영 도로테아를 중심으로 젊은 작곡가 3명(김준호, 송지섭, 김해진)이 모여 '피리에티브'라는 피리 창작그룹을 결성했다. 창단공연 'The Wave'를 9월 15일(목) 오후 8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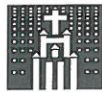
연극

러브레터

공연시간: (화·목·금) 19시30분, (수·토·일·공휴일) 14시·17시(10월 6일·10월 7일 16시·19시 30분 공연) / 문의: 02)6925-0419
입장권: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 4명 30% 할인(10월 7일 (금)·23일(주) 공연에 한함 / 단, 매진화차 사용 불가)

연극 <러브레터>가 10월 6일(목)부터 11월 13일(주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두 주인공 '멜리사'와 '앤디'역의 배우들이 관객을 향해 편지를 읽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인 만큼 배우들의 섬세한 읽기와 표현, 오직 텍스트의 힘으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제2245(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안령회장 : 차병국(바오로) 010-8733-651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다),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일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미사 안내

9월 11일(주일)	오전 7시 (주일미사)
	오전 9시 (주일미사)
	오전 11시 (주일미사)
	오후 2시 (주일학교통합미사)
	오후 6시 (주일미사)
9월 12일(월)	미사 없습니다.

◎ 주일학교 개학미사

초등부 : 9월 17일(토) 15시

중고등부·반다 : 9월 18일(주일) 10시 30분

◎ 성소후원회 미사 : 9월 20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8월~9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배경실	모니카	3-2
정정우	레지나	5-1
백민혜	미카엘라	7-1
나경엽	요셉	8-1
서진영	릴리안	10-2
심중우	루스티코	12-3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9월 25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바오로 시니어대학 개강 안내

개강일시 : 10월 7일(금) 10시미사 후

수강신청 : 수강을 원하신 분은 성당사무실에 직접 신청

담당자 : 한성근 바오로 (010-7508-7031)

차광옥 알렉산더 (010-6314-2198)

◎ 청년20예그리나전례단·30프리모전례단 모집

주님의 잔치에 함께 할 청년전례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청년20예그리나전례단장 (010-6339-6324)

청년30프리모전례단장 (010-2550-2375)

◎ 오늘은 원주교구 도계성당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천주교 원주교구 도계성당 기금마련을 위한 협조 요청

“도계성당은 탄광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이 되었고 한때는 인구가 5만 명이 넘었으나 1990년대부터 광산이 문을 닫으며 현재는 6천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교우들 숫자도 줄어들어 주일미사 50~60여명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성당은 낡고 삭아서 성전과 교육관에 비가 새고 성전 마루가 상하여 지렁이와 지네가 나오는 곳을 전임 김영진 신부님께서 개축하였고(2020년 7월 4일 봉헌), 코로나로 인해 기금 모금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힘만으로는 힘에 겨워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탄광촌 ‘도계성당 지원의 날’로 하루 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 도계성당 주임신부 이태우 요셉-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9. 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6	848 (40.5%)	808 (38.5%)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37-04-110875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67,603,300원

◎ 감사헌금 (8월 29일~9월 4일)

정수진 칠만원 임상욱 오십만원

익명 오만원 익명 일십만원

김인기 일십만원 김경만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23주일)

교무금 14,499,000원

주일헌금 4,587,5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633,000원

입당	329	봉헌	511, 217	성체	501, 496	파견	289
----	-----	----	----------	----	----------	----	-----

